

에너지 産業의 視察



한국에너지협의회에서는 會員社의 실무책임자들에게 에너지산업의 중요성과 시설규모를 見學시키기 위하여 매년 주요에너지 산업체의 産業視察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계획된 平澤火力發電所와 LNG引受基地 방문에 본인이 참석할 수 있는 행운을 맞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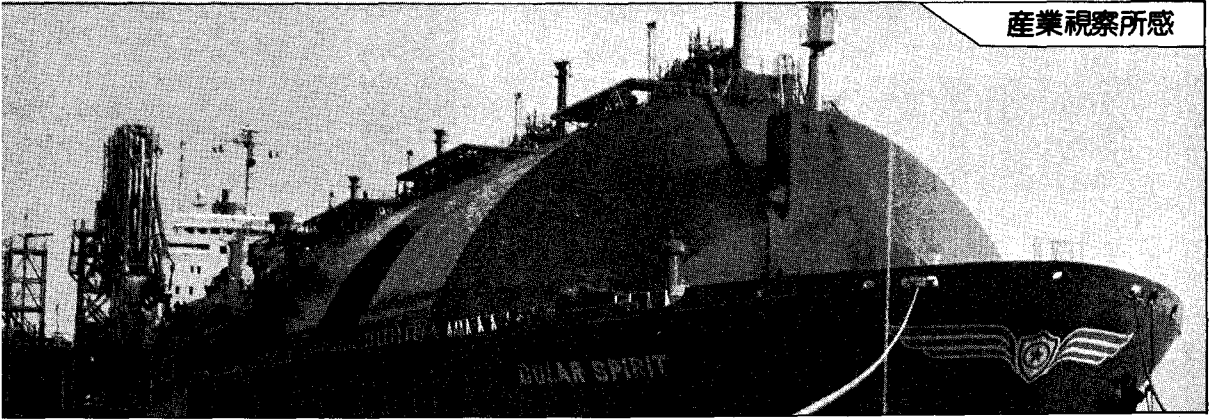
9월 29일 아침9시 예정된 집합장소에 모여 한국에너지협의회에서 준비한 韓國가스公社 버스로 출발하였다. 첫번째 訪問處인 韓國電力公社의 평택 화력발전소를 가는 도중 이번 산업시찰에 참가하게 된 목적과 의의를 들은다음 각 참석자들의 자기 소개가 있었다. 精油社, 가스公社와 엔지니어링會社 등에서 에너지전분야의 실무책임자들이 참가하였다.

평택화력발전소에 도착 한 시간은 11時 30분이 지나서였다. 먼저 發電所 現況에 관한 간단한 說明이 있는 후 발전소내 設備를 견학하였다. 평택화력발전소는 총공사비 3,206억원을 들여 '83년 8월 完工한 시설용량 140만kw의 발전소로서 특히 '86년 7월 LNG 改造工事を 완료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병커 C油 및 LNG를 겸용하여 발전할 수 있게 되어 發電燃料 多元化 및 首都圈 電力供給에 중추적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루처리능력 1,200톤 규모의 綜合廢水處理設備를 가동시키고 있었으며, 亞黃酸 가스 및 粉塵이 거의 排出되지 않는 LNG를 發電燃料로 사용함으로써 公害防止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 때마침 발전소에서는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시간을 내어 발전소 現況說明과 아울러 案内를 해주신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발전소 견학이 끝난 후, 근처에서 점심식사가 있었다. 푸르른 가을하늘, 따스하고 온묘로운 햇살과 더불어 오랫동안 서울을 떠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함께한 간소한 점심식사는 참석자 모두를 기쁘게 하였다. 우연히 만난 우리일행은 十年知己와도 같이 화기에 찬 가운데 우정을 다졌으며 특히 나로서는 精油會社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게되어 이것도 큰 인연이라고 생각되었다. 점심식사를 끝낸 후, 韓國가스公社의 LNG 인수기지를 견학하였다. 먼저 LNG 인수기지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과 LNG의 特性을 보여주는 몇가지 실험을 견학한 후, 돌핀시설을 비롯한 인수기지를 둘러보았다.

韓國가스公社는 가스의 장기·안정적 공급을 통해 國民生活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1983年 韓國가스公社法에 의해 設立되었다. 이후 경기도 평택군 서측해안 19만평 부지위에 LNG저장을 위한 10만k리용량의 탱크4기를 비롯하여 하역 및 氣化設備, 기타 부대설비를 갖춘 LNG 인수기지를 완공하여, 총연장 128km의 천연가스 공급망을 통해 '87년 2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부천·안양·수원·성남시에 기화된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公害防止와 관련하여 깨끗하고 사용이 편리하고 안전한 LNG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배관망을 건설하여,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 목포등 인구 5만이상의 전국 주요도시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全國 천연가스 供給計劃을 추진중에 있다.

평택 LNG 인수기지 견학과 기념촬영이 있는 후 마지막 訪問處인 독립기념관으로 향했다. 이곳에



도착하니 오후 4시에 접어들고 있었다. 먼저 입구에서 구내용 궤도차를 타고 기념관 후미에 자리잡은 追慕의 塔으로 가서 호국영령들에게 묵념을 한 후, 내려오면서 각 展示館을 둘러보았다. 얼마남지 않은 시간에 쫓기면서 각자 자유롭게 보고싶은 전시관을 선택하여 관람한 후, 기념관 入口에서 정해진時刻에 다시 集合하였다. 에너지 산업시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이지만,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국민모두가 힘을 모아 건립한 곳이기에 더욱 숙연해짐을 느꼈다. 저물어가는 가을 햇살 속에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民族이 걸어온 受難의 歷史를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독립기념관 觀覽을 마친 후, 5시 30분이 넘어 서울로 출발하였다. 돌아오는 버스안에서 한국에너지협의회 김상연 사무국장께서 지난 9월 13일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開催된 제14차 WEC총회에 참석하신 소감을 말씀해 주셨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니 어느덧 날은 어두어져 있었으며, 저멀리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서울의 夜景이 視野에 들어왔다. 불빛을 바라보면서 오전에 訪問하였던 平澤火力發電所 역내에서 電力生産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고 있던 從業員들의 모습을 되새겨 보았다. 밤을 밝히고 工場을 稼動시키는 原動力인 電力을 生産하는 그분들의 勞苦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에너지의 重要性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두차례에 걸친 석유위기에 대해 새삼 언급하지 않더라도 國民經濟에서 에너지 産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生産全體의 동맥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産業,

나 자신도 이러한 에너지産業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精油會社에 근무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한층 더 굳게 가지게 되었다. 이번의 산업시찰을 계기로 내가 몸을 담고 있는 會社와 에너지産業, 그리고 나 자신과의 關係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다. 내가 精油會社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에너지의 重要性을 몰랐듯이 人間の 삶이란 것도 이와 같이 경험과 각성이 없다면, 흐르는 세월따라 사라지는 덧없는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삶 속에는 각 個人의 삶에 대한 열정 즉,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앞으로 나의 人生도, 내가 몸을 담고 있는 會社도, 에너지産業도 더욱더 生動感이 넘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물론 오늘 산업시찰을 통하여 여러가지 전문적인 정보,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重要하였지만, 이러한 시찰을 계기로 自身과 自身이 몸담고 있는 기업과 에너지와의 관련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상념에서 깨어보니 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63빌딩의 모습이 눈에 선명히 들어온다. 어느덧 예정된 일정을 마치고 여의도에 도착한 것이다.

여의도에 도착한 후, 서로 헤어짐을 아쉬워 하면서 내년에 보다 알찬 내용의 산업시찰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산업시찰 행사를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韓國에너지협의회 관계자 여러분, 韓國電力公社 및 韓國가스公社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소감을 발표할 수 있는 紙面을 허락해 주신 韓國에너지협의회와 에너지産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